

U.S. Daily Briefing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10.31.(화) 제23-120호

◆ [Focus] 백악관,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혁신 선도’ 강조

◆ [What's News]

- (IRA) 재무부, IRA 외국 우려 기업 관련 지침 공개 임박
- (핵심광물) 아프리카 리튬 개발 사업에 미국 기업 참여 동향
- (반도체) 美 기업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본 영향
- (공급망) 전미자동차노조, 미 3대 차량 제조사와 잠정 합의 도출

◆ [Top Headlines]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AI) 백악관,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혁신 선도’ 강조

1. 개요

□ 백악관, 인공지능(AI) 행정명령 개요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명령 발표(10.30)

- * 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 이번 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DPA)를 기반으로, AI 모델이 국가 안보나 경제, 공중 보건 관련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 정부 통지를 의무화
- 위험한 생물학 무기 개발 방지를 위한 스크리닝 표준 개발과 오남용 및 사기 방지를 위한 콘텐츠 워터마크* 등 인증 방침 개발 지시
- *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 자발적 약속(‘23.7월)
- AI 보안 관련 추가행동 촉진,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가속화 지원,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촉구, AI 기술 혁신 지원 방안 등 포함
- * (참고) ChatGPT 등 생성형 AI(Generative AI) 규제 규범 발표(G7, 10.30)

2. 주요 내용

□ 미국 내 주요 AI 기업의 자발적인 약속을 기반으로 행정명령 발표

-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정부는 AI의 안전, 보안, 신뢰를 중점으로 AI의 이점을 활용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 정부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혁신 선도 강조

<백악관 AI 행정명령 주요 내용>

- **AI 안전 및 보안 표준 개발(New Standards for AI Safety and Security)**
 -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 연방정부 통보 의무화, AI 시스템 활용을 위해 안전 및 보안 표준 도구 개발, 생물학적 합성 스크리닝 개발 지시
 - AI 생성 콘텐츠 표준 및 모범사례 확립 노력, AI 콘텐츠 인증 및 워터마크에 대한 지침 개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구축, 국가안보각서 개발 등
- **미국인의 개인정보보호(Protecting Americans' Privacy)**
 - 미 의회에 개인정보 보호 법안 통과 촉구, 암호화 도구 및 보호기술 강화
-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Advancing Equity and Civil Rights)**
 - AI 권리장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을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의 차별 방지 대책 마련, AI 민권 침해 조사 및 공정성 보장 노력
- **AI 보급 지원(Standing Up for Consumers, Patients, and Students)**
 - 의료분야 유해성 보고 체계 수립, AI 지원교육 도구 배포 지원
- **근로자 지원(Supporting Workers)**
 - 생산성 향상 및 위험완화, 단체교섭능력 지원, 관련 지침 개발 노력
- **혁신 및 경쟁 촉진(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 의료 및 기후변화 관련 AI 연구에 보조금 확대 및 연구 촉진, AI 혁신 상용화 장려, 관련 숙련 이민자 및 비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 **국제협력 및 리더십(Advancing American Leadership Abroad)**
 - 국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현대화, 표준 개발 구현 주도 및 파트너십 강화
- **정부기관의 역할(Ensuring Responsible and Effective Government Use of AI)**
 - 명확한 표준 마련으로 AI 조달 개선 및 AI 보급 강화, 간소화 된 조달 계약을 기반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 지원, AI 전문가 채용 가속화 등

[자료: 백악관 팩트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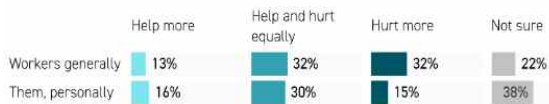
3. 현지 반응 및 전망

- 현지 언론, 이번 행정 명령의 주요 초점으로 '국가 안보 도구로서의 AI 개발(AI as a national security tool)' 주목, 정부 역할 중요성 언급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규제 당국이 AI 위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10년 내 금융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AI 위협 관리 중요성 지목
 - 지금까지는 AI 기업 간 우위 선점을 위해 일반적으로 모델 설계를 비공개로 유지해왔으나, 이후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관계 기관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
 -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역할 강화, AI 시스템 테스트 및 평가, 표준과 관련된 업계 벤치마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270일 이내 개발 명사)
 - 이번 행정명령의 법적 구속력 및 이행 강화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초당적 입법과 더불어 같은 날 발표된 G7 국가들의 AI 지침(Guiding Principles) 및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간 협업 및 동참 노력*이 중요해질 전망
 - * 예) 영국의 '프론티어 AI 태스크포스(Frontier AI Taskforce)'과 협업 강화 예상(폴리티코)

<[그림 1] 미국인의 인공지능(AI) 관련 설문조사('22년 12월)>

Nearly one third of Americans believe AI will harm workers more than it will help

How U.S. adults think the use of AI will affect workers and them personally, by per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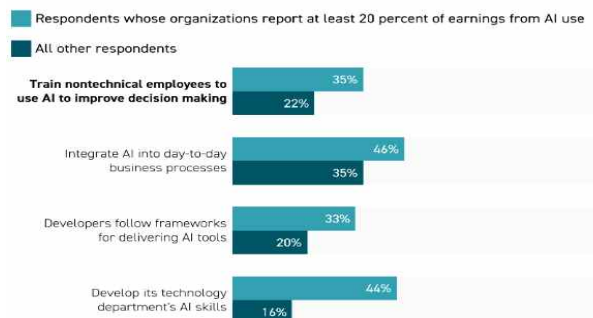
Note: Survey conducted in December 2022 among 11,004 U.S. adults. Margin of error is +/- 1 percentage point.

* 응답자의 약 3분의 1인 32%는 시가 근로자에게 긍정적 영향 보단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응답

[자료: Pew Research Center]

Before ChatGPT, most employees said their organizations did not offer training in AI

In May and August 2022, percent of employees who said their organization had used AI in the following ways:



* 응답자 대부분 AI 관련 연수를 받아본 적 없음, AI 관련 제도 구현의 느린 속도 지적

[자료: McKinsey & Company]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 백악관(10.30), 폴리티코(10.30)(10.31), WSJ (10.30), 인사이드(10.31), EU (10.30)

□ [IRA] 재무부, IRA 외국 우려 기업 관련 지침 공개 임박

- (배경) 美 재무부, 외국 우려 기업(FEOC) 관련 지침을 수 주내 공개 예정
 - 재무부는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관련 이행 지침 발표(3.31)
 - * 전기차 국내 생산요건, 배터리·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등 확정
 -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관련 지침은 연내 공개 예정
- (상세) 향후 FEOC 지침의 방향에 따라 경제·산업 파장 예상
 - IRA에 따르면, FEOC로부터 구매한 핵심 광물('25년부터) 및 배터리 부품('24년부터)을 사용해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인정
 - 이번 이행 지침 수립에서 (1) FEOC의 정의 범위 수준, (2) 미소 사용(de minimis)에 관한 공제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
- (반응)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유연한 제도를 주장하는 한편, 정치권은 우려국의 배터리 산업 견제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
 - 엄격한 이행 규정이 수립될 시, 현재 기준에서 대다수 전기차가 세액공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폴리티코프로(10.31)

□ [핵심광물] 아프리카 리튬 개발 사업에 미국 기업 참여 동향

- 미국 기업 Piedmont Lithium은 호주 기업 Atlantic Lithium이 개발한 가나 Ewoyaa 광산에서 생산되는 리튬의 약 50%를 확보
 - Piedmont는 Atlantic Lithium의 대주주이며, 개발 펀딩의 대부분 담당. 테네시에 정제 시설을 건설 후 테슬라와 LG화학에 공급할 계획

- Ewoyaa 광산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리튬 개발 사업으로 평가
 - '26년까지 리튬 3만 6,000톤 양산 예상(테슬라 모델3 80만 대 제작분)
 - '30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의 리튬 생산은 70배 이상 증가 예상
 - ⇒ 국제 리튬 생산에서 아프리카 비중이 현재 1%에서 14%로 증대
- 중국 자본이 배제된 최초 아프리카 리튬 개발 프로젝트를 미국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전기차 핵심 광물 확보 경쟁에서 가시적 성과 기대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블룸버그 Gov(10.31)

□ (반도체) 美 기업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본 영향

- (개요) 美 상무부, 엔비디아에 수출통제 관련 서한 발송
 - 서한은 美 기업의 기존 수출통제 우회 노력* 차단에 집중한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본(23.10.17)이 즉시 발효될 것으로 통보
 - * 엔비디아는 산업안보국 규제에 맞춰 AI 개발용 첨단반도체 A100, H100을 중국 시장용 저사양 모델인 A800, H800으로 생산·수출해옴
- (상세) 수출통제로 50억 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 취소
 - 현지 언론은 엔비디아가 강화된 통제 조치의 발효 시기를 11월로 전망하며, 중국기업에 조기 납품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도
 - 일부 전문가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원활한 반도체 공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국의 AI 발전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전망
 - * 중국기업들은 엔비디아와 대체제로 L40S, V100 반도체를 논의했지만, 과도한 AI 연구 비용 인상(30%)으로 인해 대체 불가로 고려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준성
▪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10.31)

□ [공급망] 전미자동차노조, 미 3대 차량 제조사와 잠정 합의 도출

- (개요) 전미자동차노조(UAW), 7주간의 對 3사 파업 종료 발표(10.30)
 - 4년 만기 노동 계약의 갱신 조건을 협상하며 파업이 시작(9.15), 포드·스텔란티스·제너럴 모터스 순으로 합의에 이르며 파업 종료
- (상세) 향후 4년간 임금 25%(즉시 11%) 인상에 관련 기업 부담 가중
 - 파업으로 인한 손해(미화 29억 달러)와 임금인상으로 인한 전기차 생산 비용 상승 전망에, 포드·GM은 전기차 생산 계획 축소를 발표
 - * 노사는 상당수 배터리 공장 직원들도 노조에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
 - 일부 전문가는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관련 인건비 부담과 비조합원 제조사(테슬라, 토요타 등)에 임금인상 압력 증가도 예상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마민서
▪ 자료원	블룸버그(10.31 , 10.24)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he Money Has Stopped Flowing in Commercial Real Estate (유동성 경색을 겪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용 대출 규모가 사상 최저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 포착. 이로 인해 채무 불이행 위험 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 불황을 초래.
The Washington Post	Senate panel appears to back Biden aid package for Israel, Ukraine (미 상원, 바이든의 패키지 지원안을 선호?)
	화요일 상원 위원회에서는 바이든의 1,050억 달러 규모 패키지 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 경향 포착.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의 분리 기조와 사뭇 다른 방향
The New York Times	U.A.W. Strike Gains Could Reverberate Far Beyond Autos (자동차 산업 너머로 퍼지는 UAW 파업의 잔향)
	전문가들은 이번 전미자동차노조의 “승리”가 다른 노사협상에 있어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 노동사학자들, 이번 노사협상을 역사적인 승리로 평가
CNN	Senate GOP split on whether to endorse House’s plan to pass Israel aid separately (상원 공화당, 하원의 이스라엘 분리 지원안 두고 분열)
	미치 매큔널, 밋 롬니 등이 이스라엘-우크라이나 패키지 지원안을 지지하는 가운데, 랜드 폴 및 릭 스크 등은 하원의 분리 지원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USA Today	Senate confirms the next ambassador to Israel as its war with Hamas rages on (중동사태 와중에... 미 상원, 차기 주이스라엘 대사 승인)
	미 상원, 잭 류 차기 주이스라엘 대사 후보자를 53-43으로 승인. 공화당은 류 후보자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협상 참가이력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

* 미국 동부시간 10월 31일 16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 · 통상 일정

10.31(화)	3분기 고용비용지수(Employment cost index)
11.1(수)	10월 S&P 미국 제조 PMI (U.S. manufacturing PMI)
11.2(목)	3분기 미국 생산성(U.S. productivity)
11.3(금)	10월 미국 실업률(U.S. unemployment rate)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30	2024년 미국 대선 전망,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10월
US23-29	美 의회 임시 세출 결의 처리 경과 및 향후 섣다운 전망	2023.10월
US23-28	미국 정부의 대중 투자규제 동향 및 시사점	2023.10월
US23-27	미국 연방정부 섣다운 가시화 속 현지 반응 분석	2023.09월
US23-26	신규 회계연도 압박, 美 의회 예산안 입법 동향	2023.09월
US23-25	2022년 주요국 해외투자 동향(UNCTAD 보고서)	2023.09월
US23-24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수소 전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8월
US23-23	해외투자 심사 관련 상원 법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7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헤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GMR23-026	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	2023.09월
US22-기 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 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4 (2023.6.30)	 <p>전미자동차연구센터(CAR) '앨런 아미야'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p>	
코인시-13 (2023.6.26)	 <p>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켄달 스투리버'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p>	